

임실군청SNS, 군정홍보 특특

페이스북·인스타·카카오톡 채널·유튜브 채널 운영 시너지 10만여명 과급효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제공

올 한해 임실군청 SNS가 각종 축제와 행사,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알리는 홍보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이용자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었다.

군은 현재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개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들 채널을 항상 공유하고 있는 총 친구 수는 32,901명으로, 이는 임실군 전체 인구 수인 2만6천여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자, 직간접적인 홍보과급 효과는 10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대비 SNS 채널 친구 증가 수는 카카오톡이 당초 734명에서 1801명으로 150% 증가한 가운데 유튜브 1,882명(1만1,407명→1만3,351명), 페이스북 244명(1만3,429명→1만3,673명), 인스타그램 561명(3,515명→4,076명) 등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올해 급성장한 카카오톡 채널은 다양한 군정 소식과 축제 및 행사, 재난정보 등을 보다 빠르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든든한 '소통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주요 관광지에서 펼쳐진 축제와 행사 등을 시기적절하게 알리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특히, 56만여 명이 찾은 임실N치즈 축제와 40만여 명이 방문한 목정호 출렁다리, 4만여명평의 코스모스 군락지, 사선대,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군청SNS를 찾은 이용자들이 임실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개인 SNS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 확산, 재확산되면서 효능감을 높였다.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페이스북과 인

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인 일명 '나무강'과 개그맨 옥심이 출연하는 '엄니! 감이!'의 축제 현장 라이브 생중계 등 SNS 홍보 게시물은 10만여 회에 달하는 노출률을 기록하며, 축제 성공을 견인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무겁고 딱딱한 정책 홍보 대신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 정보와 맛과 멋, 다양한 소식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제작, 제공하여 임실군의 좋은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군은 이러한 SNS 성장세를 바탕으로 임실군 관광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에 적극 기여하고 임실군 관광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 SNS가 올해 임실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방문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SNS 운영을 통해 임실관광을 알리고, 주민들이 빠르게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보고회

답례품 선정 및 미사용 포인트 활용 방안·기부금 사용처 토론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는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의회 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순창군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최용수 대표의원, 마화룡 의원, 손중석 의원, 이성용 의원)가 개최한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의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한국지리정보학회 배관표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책연구회 의원들의 정책발표와 질의, 집행부의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상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답례품 선정 및 미사용 포인트에 대한 활용 방안과 기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고회에서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여 기부자가 순창을 찾아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자", "기부자의 이름을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기부



순창군의회는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의회 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자와 협의하여 어려운 사람에게 한끼 식사로 제공하자'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회 대표인 최용수 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순창군에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신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안건들을 반영하여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

회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매년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전경.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 노인복지관수탁법인 '승소'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소송 종료시 경로식당 등 복지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지난해 5월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을 선정했으나 의회 5분 발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정과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면서 이에 따른 특정 조사 등을 통해 신청법인 측의 일부 기재 사항 누락과 법인 상근인력 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수탁법인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최초 수탁법인인 A모 사회복지협동조합이 남원시를 대상으로 수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등의 공익이 원고의 신뢰이익 상실이나 손해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도 항소 여부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소송이 종료되면 경로식당,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활동,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기투 기자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쳐... 의원 질문 잇따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홍)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집행부의 24개 실·과·소와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 내용이다.

김정홍 위원장은 수의계약 업무 관련하여 용역 발주 기준을 명확히하고 투명하게 하여 계약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해소해 줄 것과 행정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용역 진행 시 하자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진행 이후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사업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 정일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임실군의 현실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매해 늘어나고 있는 순세 계입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증가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과 여성농업인이 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등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 교육과 CCTV를 통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김종규 의원은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사업 등 평가 기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더불어 먹거리 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확대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전기열선 주의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7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수도 배관이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하는 동파 방지용 전기열선의 화재주의를 특별히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전기열선 화재는 총 31건으로 매년 6.2건 발생하고 있으며, 4건의 인명피해도 포함하고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VC배관에 열선을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할 경우 온도가 148℃이상 급격히 상승하며, 여기에 보온재를 입히면 열이 축적되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해 연기와 불꽃이 나며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남원=김기투 기자

임실군, 월동 맥류 관리 당부

임실군은 밀과 보리 등 맥류의 월동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보리, 밀 등 맥류는 습해에 매우 약한 작목이므로 논외의 가장 자리에 좌우로 배수로를 연결시키고, 배수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등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정비하여 과습 피해 방지에 힘써야 한다. 재배지의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토양의 수분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지 못해 얼거나 산소 부족으로 월동 중 잎이 노랗게 변하여 말라죽는다. 따라서 습해가 심해 작물 생육이 부진한 포장에서는 질 2% 액으로 잎에 비료를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투 기자

순창군, 농촌유학생 설명회

순창군이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전북 농촌유학 설명회에서 농촌유학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농촌유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2024년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설명과 모집 일정 안내, 전북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소개,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